



김 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해안형질연구실 연구위원
(wonkim@kict.re.kr)

안타까운 우리 하천의 역사 5 일제강점기는 홍수의 연속이었다! -조선의 하천(1935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홍수는 언제일까?

우리나라는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연속적인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년 홍수는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피해가 심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홍수는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홍수는 언제일까?

일제강점기의 국가(직할)하천은?

우리나라에서 하천은 관리의 목적으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되는데, 이와 같은 구분은 1927년 1월 22일에 반포된 조선하천령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천령은 공공의 이해 관계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인정하천)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천령 공포 당시에는 본류 37개, 지류 128개 하천이 대상이 되었다. 인정하천 중 조선총독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천을 직할하천이라고 하였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나머지 하천은 지방하천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천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하천은 준용하천이라 하여 도지사

일제강점기 직할하천(현재의 국가하천)

명칭	구간		구간연장 (km)
	기점	종점	
압록강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 대연지봉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진관동(하춘) 삼각점(24.5m)에서 남 80도 서로 그은 선	795.5
청천강	평안북도 영변군 웅산면 령천 합류점	평안남도 안주군 입석면 서호리 태항산 삼각점(33m)과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일해동 화도삼각점(26m)을 잇는 선	88.4
대동강	평안남도 덕천군 잠도면 정평동천 합류점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직전리 입봉각 삼각점 (102.8m)에서 북 30도 동으로 그은 선	278.8
예성강	황해도 평산군 금암면 누천 합류점	경기도 개풍군 남면 창릉리(배양동) 삼각점 (27.2m)에서 황해도 연백군 해월면 용봉리(고미동) 삼각점(7.8m)으로 그은 선	53.0

일제강점기 직할하천(현재의 국가하천)계속

명칭	구간		구간연장 (km)
	기점	종점	
한강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면 죽령천 합류점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용강리 유도 31m 산정에서 남북으로 그은 선	268.9
안성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한천 합류점	경기도 진위군 현덕면 권관리 권관각 32m 산정에서 남 55도 서로 그은 선	47.3
삽교천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면 덕산천 합류점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화석산 삼각점 (45.3m)에서 남 60도 동으로 그은 선	34.0
금강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 합류점	충청남도 서천군 서남면 장항리 전망산 등대에서 남 30도 서로 그은 선	248.2
만경강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 합류점	전라북도 김제군 진봉면 심포리(거전리) 삼각점(39.5m)에서 북 10도 서로 그은 선	78.4
동진강	전라북도 정읍군 정우면 · 태인면 · 신태인 삼면계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노길리) 27m 산정에서 북으로 그은 선	23.1
영산강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면 · 금성면 면계	전라남도 무안군 일노면 양호도 41m 산정에서 북 30도 동으로 그은 선	95.0
섬진강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전라북도 남원군 대강면, 순창군 풍산면 삼군계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갈도 삼각점(52.2m)에서 서로 그은 선	103.1
낙동강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읍 반변천 합류점	경상남도 김해군 녹산면 화전리 삼각점 (189.2m)에서 남 60도 동으로 그은 선	347.7
형산강	경상북도 영일군 연일면, 경주군 강동면 군계	경상남도 영일군 포항읍 · 대송면 해안선	12.4
안변남대천	함경남도 안변군 학성면 청적천 합류점	함경남도 안변군 안도면, 덕원군 현면 해안선	20.4
용흥강	함경남도 영흥군 흥인면 · 순령면 · 덕흥면 삼면계	함경남도 영흥군 진평면 저도리 대저도 산정에서 남 80도 서 및 북으로 그은 선	29.5
금진강	함경남도 정평군 장원면 금진교	함경남도 정평군 귀림면 · 춘류면 해안선	20.0
단천남대천	함경남도 단천군 하다면 송파리 삼각점(97.3 m)에서 서로 그은 선	함경남도 함주군 단천군 파도면 해안선	15.0
성천강	함경남도 함주군 기곡면 · 주북면 · 상기천면 삼면계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 삼평면, 연포면 해안선	28.9
북청남대천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동리천 합류점	함경남도 북청군 청해면 · 속후면 해안선	26.0
수성천	함경북도 부령군 석막면 옥련천 합류점	함경북도 청진부, 경성군 용성면 해안선	16.4
두만강	함경북도 무산군 삼장면 대연지치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오갈암 이동해안선	568.1

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하천령에서는 하천을 국유로 지정하고 있으며, 하천 내에서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제거하고 유수를 끌어 쓰거나 하천에 주수(注水)하거나 기타 하천을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하천 인근에서 시행되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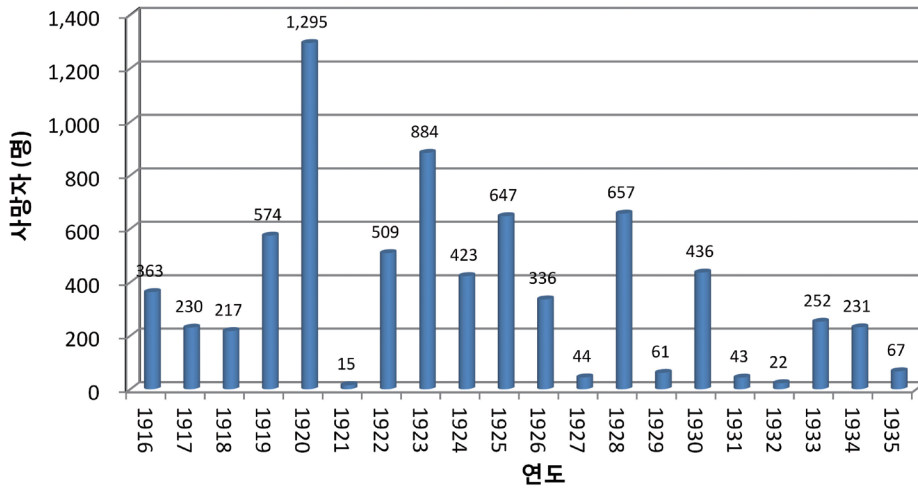
제거·대나무의 식재·벌채·지형변경 등에 대해서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하천 내에서의 유목·뗏목·식재·채취·도석·자갈 채취 등도 허가 사항이었다.

일제강점기는 홍수의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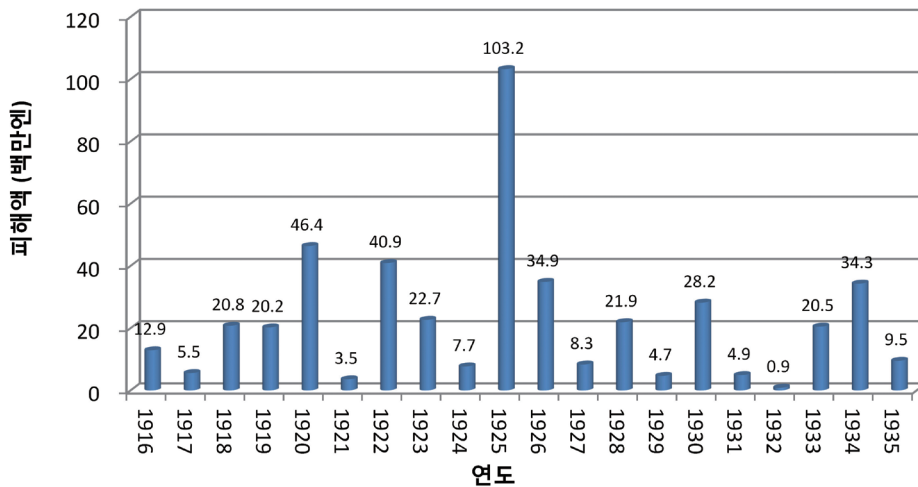
일제강점기는 홍수의 연속이었다. 대홍수라고 할 수 있는 홍수가 1916년을 시작으로 1919년, 1920년, 1922년, 1923년, 1925년, 1926년, 1928년, 1930년, 1933년, 1934년 등 거의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916년부터 1935년까지 20년 동안 무려 11번의 대홍수가 발생한 것이다.

1925년에는 피해액에 1억엔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홍수가 발생하였고, 1919년에는 함경남도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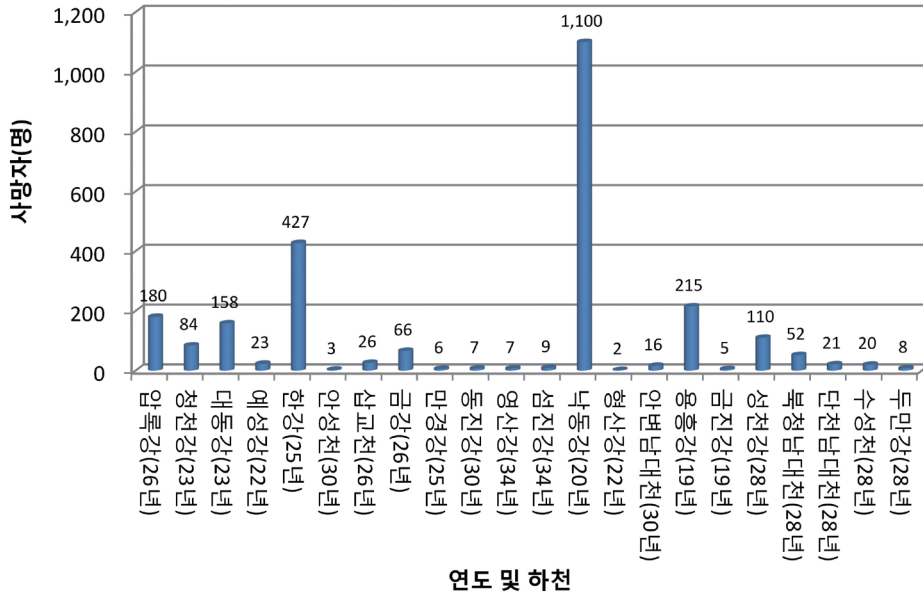
년에는 중부에서 남부지방에 걸쳐 대홍수가 발생하였다. 1922년에는 임진강, 예성강, 재령강이 범람하였고, 1923년에는 대동강 연안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1928년에는 함경도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성천강 유역에서는 1정보당 636엔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최대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1925년 홍수시 496엔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1930년에는 전국에 걸쳐 홍수피해가 발생하였고, 1933년과 1934년에는 남부지방에 큰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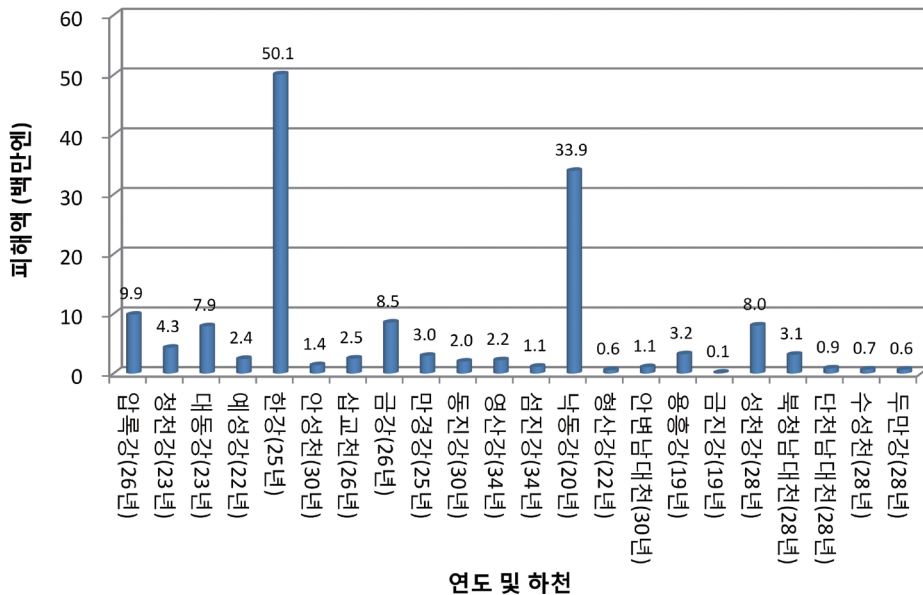
연도별 홍수피해(인명)



연도별 홍수피해(재산)



하천별 최대 홍수피해(인명)(1916-1935)



하천별 최대 홍수피해(재산)(1916-1935)

1920년에 낙동강에서 홍수로 1,100명이 사망!

연속된 대홍수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였다. 토지매물, 가옥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가축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1916년에서 1935년까지 20년 동안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무려 7,406명에 달해서 연평균 사망자가 370명을 넘어섰다. 특히

1920년에는 1,295명이 사망하였고, 1928년에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1,064명에 이르렀다. 1920년은 낙동강에 대홍수가 집중되어 낙동강에서만 사망자가 1,100명에 이르러, 한강의 최대 홍수인 1925년 한강에서의 사망자 427명을 훨씬 넘어섰다. 사망자만 본다면 1920년의 낙동강 홍수는 최대 피해를 일으킨 홍수라고 할 수 있다.

피해액으로 보면 1925년 홍수가 1억 3백만엔으로 가장 크고, 1920년 홍수가 46백만엔으로 그뒤를 차지한다. 가옥피해 측면에서 1934년 홍수시 약 2만여채의 가옥이 전파되었고 1925년 1만 7천여 가옥, 1923년 1만 3천여 가옥이 전파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6천3백여 가옥이 유실되거나 전파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하천별로 최대 홍수가 발생한 연도가 대부분 다른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강은 1925년, 낙동강은 1920년, 금강은 1926년, 섬진강과 영산강은 1934년이 하천별로 최대 홍수가 발생한 연도이며, 대동강은 1923년, 압록강은 1926년, 두만강은 1928년에 최대 홍수가 발생하였다.

한강에서는 단양까지 상시로 수운 활발

일제강점기의 하천은 물류이동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철도나 도로망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천은 매우 유용한 물류이동 수단이어서 당시 압록강의 뗏목이 300만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생활필수품인 소금, 염어(塩魚), 포목류 등은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 내륙으로 이송되었고, 내륙의 곡물은 하류지역으로 이송되었다. 이로 인해 한강의 용산과 마포, 낙동강의 구포와 왜관, 금강의 강경과 논산, 대동강의 평양, 압록강의 안동현과 신의주가 유명한 나루터로 성장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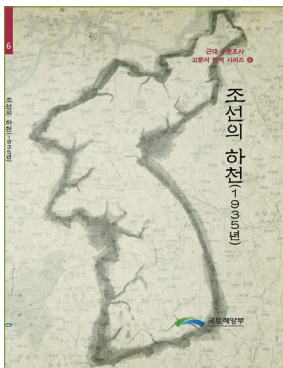
하천별 수운 운항 내역

하천명	구간		주요 기항지 수	수운 중심점	중심점을 지배하는 상업지	적요
	구역	연장 (km)				
압록강	하구 ~ 혜산진	75.02	32	창성, 벽동, 고산진, 만포진, 강구, 중강진, 후주, 고읍, 신갈피진, 혜산진	의주, 신의주	
두만강	하구 ~ 무산	38.49	15	경흥, 하여평, 신아산, 훈계, 온성, 중성, 회령, 무산	원산, 청진	무산 상류는 뗏목구역이 있음
낙동강	하구 ~ 안동군 인동	34.17	29	왜관, 삼랑진, 서포, 하단	부산, 대구	
금강	하구 ~ 부강	11.79	24	강경, 논산, 공주	군산	
영산강	본포 ~ 영산포	6.68	13	노경포	본포	노경포는 영산포보다 22정 상류, 외양범선(外洋帆船)은 노경포, 소기선(小汽船)은 영산포를 종점으로 한다.
한강	하구(임진강 합류점) ~ 강원도 영월	29.85	57	영월, 단양, 여주, 양주	경성	상시 항행은 하구에서 단양까지로 한다 (64 리).
북한강	본강 합류점 ~ 양구군 만산면 서호리	13.75				상기 구역에 걸쳐 상시항행이 있어도 춘천보다 상류는 주항 곤란하였다.
임진강	하구 ~ 이천군 안기면	12.18	25	고랑포, 연천, 장연	충남 · 태안 · 경성 · 인천	결빙기
대동강	하구 ~ 덕천군 덕천	24.74	28	평양, 겸이포	진함포 · 겸이포 · 평양	덕천을 종점으로 한다고 해도 여울이 많아서 감수시는 항행 불능이고 5.27 하류의 북창을 보통 종점으로 하였다. 평양보다 상류는 흘수(吃水) 5m의 조선선만 항행하고 동기 약 60일간 결빙 때문에 주항 불능
청천강	하구 ~ 희천군 희천읍	11.78	18	원일리	신안주	보통 백석적 이상의 조선선은 안주군 원일리까지 30석적 이상의 배는 개천군 구장까지, 이보다 상류는 연2, 3회 항행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하천별 수운 운항 내역(계속)

하천명	구간		주요 기항지 수	수운 중심점	중심점을 지배하는 상업지	적요
	구역	연장 (km)				
재령강	진남포 ~ 재령군 청류포	3.14	17	신창, 청류포	진남포	이보다 상류 타주벌(塚舟筏)은 다닐 수 있지만 외양기선은 이곳을 종점으로 하고 이보다 상류하천은 배 없음
섬진강	하구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6.68	7	하동진	부산	오지리에서 2.5리 하류 압록리간은 앞은 여울 때문에 평수시의 항행곤란, 지천에는 평수시 항행할 수 있는 구간 없음
대령강	하구 ~ 태천군 강동면 덕봉리	6.68	9	하일리포, 구진, 신진(박천의 일부)	인천	외양기선의 항행은 박천까지로 한다. 이보다 상류는 50석적 이하의 조선선의 항행에 그친다.
예성강	하구 ~ 금천군 서북면 청룡포	3.14	3	벽란도, 조포		
영흥강	하구 ~ 영흥군 흥인면 역평리	1.60	2	오리포	원산	간신히 영흥읍까지 거슬러갈 수 있다.
만경강	하구 ~ 전주군 삼례면 사천리	5.12	7	화포, 신창진, 동지산, 목천포	군산부	백석적 이상의 배가 다닌다. 항로종점은 목천포, 목천포 이상은 만조시의 외항행 적음
삽교천	하구 ~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2.75				
동진강	하구 ~ 백산면	1.18				
계		389.23	303			

과거의 홍수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서 1935년까지 20년 동안 11번의 대홍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각 하천별로 대홍수 발생연도가 다르다는 것도 특이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25년 을축년 홍수는 한강에서만

장 큰 홍수이고, 낙동강이나 금강에서는 각각 다른 해에 대홍

수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한 해 동안 낙동강에서 1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연평균 370명의 홍수로 인 해 사망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과거의 홍수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에 발생한 홍수의 규모, 지역적 특성, 피해의 규모 등은 미래의 홍수대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만 특이하게도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픈 역사이지만 미래를 대비하여 홍수자료를 복원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술자의 책임일 것이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하천 관련 자료 10권(조선의 하천(1935년) 포함)을 번역하여 발간하였으며, 정부간행물판매소 또는 시중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